Patterns in Global Television—Peripheral Vi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mith, Anthony. 1991.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Books.

Smith, Anthony. 1990. "Toward a Global Culture?" In Featherstone(1990), 171-191.

Storey, John 저 · 박모 역. 1994.『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Tempelman, Sasja. 1999. "Constructions of Cultural Identity: Multiculturalism and Exclusion." *Political Studies*. 47, 17-31.

Thussu, Daya Kishan 저 · 배현석 역. 2004.『국제커뮤니케이션: 연속성과 변화』. 파주: 한울.

Tomlinson, John 저 · 김승현 · 정영희 역. 2004.『세계화와 문화』. 서울: 나남.

Tomlinson, John 저 · 강대인 역. 1994.『문화제국주의』. 서울: 나남.

UN. 1995. *Our Global Neighborhood: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allerstein, Immanuel 저 · 나종일 외 역. 1997(1999).『근대세계체제』1-3. 서울: 까치.

Waters, Malcolm. 1995.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Williams, Raymond. 1983.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ise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illiams, Raymond. 1976.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London: Fontana.

Zakaria, Fareed. 1994. "Culture Is Destiny: An Interview with Lee Kwan Yew." *Foreign Affairs* 73(2), 109-126.

川勝平太. 1997.『文明の海洋史觀』. 東京: 中央公論新社.

浜下武志. 1994.『近代東アジア國際体係』. 平野健一郎 (編)『講座現代アジア. 4 地域システムと國際關係』. 285-325.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浜下武志 · 川勝平太 (編) 1991.『アジア交易圈と日本の工業化 1500-1900』. 東京: リブロ.

11 정보화와 세계정치

김 상 배

Ⅰ. 머 리 말

20세기 후반 이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는 우리로 하여금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 즉 '정보세계정치(GPI: Global Politics of Information)'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Rosenau and Singh 2003).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의 주요 연구영역이 국가적 삶을 다루는 군사안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2차 대전 이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탐구하는 국제정치경제학이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도 이러한 군사안보와 정치경제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세계정치 변환의 핵심은 이러한 문제들이 종전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세계정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21세기 세계정치는 누가 주도가 되어, 무엇을 추구하며, 그러한 와중에 어떠한 질서가 출현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동인(動

因)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계정치 변환의 한 가운데 정보화로 대변되는 기술·정보·지식(이하 통칭하여 지식)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21세기의 첫 발을 내딛는 우리의 삶에서 지식은 세계정치가 이루어지는 물적·지적 조건의 변화를 의미한다(Innis 1950). 100여 년 전의 세계정치가 군함과 기차를 타고 전보를 치고 전화를 거는 시대적 환경에서 펼쳐졌다면, 오늘날의 세계정치는 초고속 제트기와 항공모함을 타고 인터넷과 인공위성, 그리고 휴대폰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다름 아니라 IT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혁신과 지식생산의 역량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인류의 능력 향상에서 기인한다. 우리 삶의 물적·지적 조건이 향상된 만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정치가 추구하는 목표나 세계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모습과 행태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보화가 변화시키고 있는 세계정치 현실의 현란함에 비해서 정보세계정치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은 그리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Talalay et al eds. 1997). 정보세계정치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진행된 연구의 이론적 시각과 특징 및 쟁점은 무엇인가? 정보세계정치의 연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개념과 이론은 무엇이며 이러한 와중에 제기된 연구주제들의 동향은 어떠한가? 기존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진영은 정보화와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제공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진행된 정보세계정치의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연구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연구될 만한 주제들을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글은 변환의

과정에 접어든 21세기 세계정치의 내용을 정보화 또는 지식 변수가 야기하는 세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세계정치 변환의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정보화란 무엇이고 지식은 세계정치에서 왜 중요한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권력의 구성요소와 작동방식이 변형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은 부(富)와 강(强)을 달성하는 수단을 넘어서 세계정치의 목표와 질서를 새롭게 구성하는 동인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정치의 세력구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식의 권력적 함의가 부상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세계정치 행위자들의 경쟁과 협력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와중에 지식질서뿐만 아니라 세계질서 전반의 세력구도가 변하고 있다. 한편, 지식권력을 둘러싼 세계정치가 활성화되는 와중에 근대 국제정치는 어떠한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지식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비(非) 국가 행위자들이 세계정치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로 증대되면서, 국민국가는 안팎으로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가행위자로 변환하고 있다(하영선·김상배 편 2006).

Ⅱ. 정보화와 세계정치의 이론

1. 도구적 기술론과 현실주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에서 본 기술은 국가의 이익과 생

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권력개념에 비추어 볼 때, 기술은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 권력자원이다. 역사적으로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기술을 인식하는 정책담론이 존재해 왔지만, 최근 IT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술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권력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첨단 IT를 바탕으로 제조된 군사무기는 현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IT산업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인적자원의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경제전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현실주의적 기술담론은 일반대중에 널리 유포되어서 언론매체에 오르내리는 IT와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이 이러한 부국강병의 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정책차원의 기술담론이 득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작 정교한 이론틀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현실주의 이론은 IT와 세계정치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무엇보다도 현실주의의 인식론적 편향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술변수의 위상설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현실주의 이론은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준거틀로서 인체구조를 상정하는 '유기체적 은유(organic metaphors)'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육체와 영혼에 대한 데카르트적 이분법에 근거하여 사회구조에 대한 은유를 상정하고, 이를 국제정치에 투영하여, 현실주의 이론의 두 축인, 영토성(territoriality)과 국가이성(raison d'etat)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동하듯이, 국가는 국가이성을 소유하고 영토의 물리적 보전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주의의 '유기체적 은유'는 국가를 지고의 목표로 보는 이론적 시각을 창출하였고, 여기서 기술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원되는 많은 수단 중의 하나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도구적 기술론에 의거해서 볼 때 기술변화는 국제정치의 본질적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가 아니다.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기술은 국가의 본질과는 무관한 요인이며, 국제정치의 본질은 기술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를 초월하여 불변한다. 간혹 있을 수 있는 기술적 변용도 인간들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동기나 목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인식론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이 기술변수의 세계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주의자들의 눈에 기술변화는 기껏해야 국가가 활용하는 권력적 도구의 변화 정도로만 비쳤던 것이다.

이러한 기술변수에 대한 냉담은 신현실주의 이론이 설명하는 국제체제의 구조변화에서 기술변수가 차지하는 미미한 역할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신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국제체제의 구조변화는 권력분포의 변화나 패권국의 변경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다만 '환경적 요소'일 뿐이다. 신현실주의 모델에서 기술변화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들 요소는 체제 내적인 변수가 아니라 체제 외적(extra-systemic) 변수이다. 다시 말해, 기술변화는 체제의 단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현상적인 변화'일 뿐이다. 따라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이러한 종류의 현상적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부재하다. 국제체제의 본질은 환경적 변화와는 상관없이 불변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기술발달에 따른 국제정치의 변화를 논하더라도 신현실주의 시각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스코니코프(Eugene Skolnikoff)에 의하면, 기술변화로 인해서 국민국가체제의 근본은 세간에서 떠들썩하게 떠드는 것처럼 변화하지는 않았으며 짧은 시일 내에 변할 것 같지도 않다고 한다. 다시 말해 기술발달이 국가단위를 상정하는 국민국가체제의 기본전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획기적인 기술변화가 국가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국제정치의 과정(process) 차원에서 변화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간의 권력분포가 변화하거나 국가의 권위와 능력이 다소간 침식될 가능성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스코니코프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 궁극적으로 현실주의적인 것은, 이러한 기술변화로 인해서 근대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그 자율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세력에 저항하면서 일련의 적응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그의 인식에서 발견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기술론에서 파생되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고 다소 파편적이기까지 하다. 무엇보다도 현실주의 전통은 국제체제의 구조차원이 아닌 과정차원에서 기술의 발달이 야기하는 변화의 포착에 둔감하다. 그런데 실제현실을 보면, 이러한 과정차원의 변화는 국제정치 행위자들간 권력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패권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또한 현실주의 전통은 이러한 과정차원의 변화가 국제체제의 질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둔감하다. 인식론적으로 제한된 지평에서 형성된 도구적 기술론의 레이더에 기술변화가 세계정치의 게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잡힐 리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실주의적 기술론이 상정하고 있는 인식론적 편향은 국가간(inter-national) 관계를 넘어서, 기술변화가 야기하는 세계정치 변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고 있다.

2. 환경적 기술론과 자유주의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에서 본 기술은 세계정치에서 새로운 제도환경을 창출하는 과정 차원의 주요 동력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IT는 '무경계의 세계(borderless world)'를 여는 초국가적 동력의 대명사이다. 현실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술관은 정부정책, 언론매체, 학술논문 등에 널리 배어 있는 정책담론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책담론은 1990년대 이후 부쩍 많이 등장하였는데, 전 미국 부통령인 고어(Al Gore)가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전파의 선구자로서 인터넷과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를 주창한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또한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의 세계를 묘사하며 '역사의 종언' 테제를 내세우는 배경에 깔려 있는 신자유주의적 기술론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후쿠야마가 그리고 있는 세계에서 IT는 '역사의 종언'을 향한 변화의 초국가적 동력이며,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 및 평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술론은 자유주의이론 전통의 인식론적 특

징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팔란(Ronen Palan)에 의하면, 현실주의가 '유기체적 은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자유주의는 '체계(systems)의 은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주의자들의 눈에 비친 사회는 자연공동체(natural communities)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인위적 실체(artificial entities)로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사회는 정치체계 · 국가 · 법 등과 같은 인위적 실체들을 통해서 결합되는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체계는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적응하는 과정을 밟아 나간다. 이러한 '체계의 은유'에서 기술은 독자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독립체가 아니며, 체계의 부분 또는 전체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인식론에서 파생되는 기술의 개념은 체계의 '환경적 요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기술론은 코헤인(Robert Keohane)과 나이(Joseph Nye, Jr.)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라는 개념의 형태로 국제정치학적 논의의 장에 떠올랐다. 코헤인과 나이에 의하면, 세계정치는 상호의존의 증대라고 하는 외부적 동력에 의해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그들이 상호의존이라고 개념화한 것은 다름 아닌 커뮤니케이션, 교통, 기술 등의 발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호의존은 세계정치의 변화를 야기하는 환경적 요소이다. 그런데 코헤인과 나이는 이러한 세계정치의 환경적 요소를 단순히 기술변화라는 중립적 용어로 부르지 않고, 상호의존의 증대라는 다소 가치개입적인 개념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술론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유주의 전통은 세계정치 변화의 요소로서 과정 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원적 변인들을 상정하고 있는데, 기술은 이러한 다원적 변인 중에서 하나이다. 물론 기술은 그러한 다원적 변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독립변수로서 인식된다. 이러한 구도에서 소위 "IT가 …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식의 도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자유주의적 기술론은 기술과 변화에 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술변화는 곧 인류의 보편적 진보와 연결된다. 기술변화를 상호의존의 증대와 등치시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예를 들어, IT는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간 또는 개인간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동력으로 인식된다. 끝으로, 자유주의적 인식에서 기술은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이 적응해야만 하는 특정한 형태의 제도환경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 IT의 도입은 탈집중, 협력, 평화, 투명성 등으로 대변되는 제도환경을 창출함으로서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개방 · 개혁의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이론 전통의 환경적 기술론에서 파생되는 세계정치의 권력관은 제도적 또는 구조적 권력, 즉 주어진 제도나 구조적 환경을 경유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IT의 등장은 국가간의 관계에서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규칙형성의 과정을 통해서 권력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상호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술론과 권력론에서 파생되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국제적 협력을 증대시키는 상호의존의 환경에 부합하는 모습과 함께 권력의 지배양식이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형태를 바꾸어 작동하는 모습을 동시에 갖는다. 한편, 이러한 과정은 국가의 주권적 통제가 약화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이나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부상하는 현상을 촉진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탈집중 관리양식의 형태로 권력의 작동과 세계질서의 구조가 재편되는,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가능성을 연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술론이 지니는 한계는 여전히 기술변수를 세계정치의 내재적인 요소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변수 자체는 여전히 체제의 외생적 요인으로 학문적 관심영역의 바깥에 존재하며, 다만 이러한 기술이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만이 국제정치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정치의 변화를 야기하는 과정적 변화로서 기술변화가 어떻게 발생하고,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제도환경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인과적 또는 구성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유주의적 기술론에서 찾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기술과 세계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다분히 기술결정론적 오류를 범할 우려마저 있다. 결국 기술과 세계정치의 구성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도구' 또는 '중립적인 환경'의 의미를 넘어서 세계정치의 변화를 야기하는 동태적인 요소로서의 기술의 성격을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상징적 기술론과 구성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은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기술론이 내포하고 있는 인식론적 편향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러한 편향은 애쉴리(Richard Ashley)가 '기술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애쉴리에 따르면, 주류이론 진영은 기술을 인공물(artefact)으로 개념화하기 때문에 인공물으로서의 기술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정치경제의 구조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경시하고 있다고 한다. 주류이론에 비친 기술변화는 '기술적 가능성(technological possibility)'의 논리만을 따라서 진행되는 '자동적 현상'이며, 이는 기술합리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상은 기술이 세계정치를 합리화하는 초국가적 동력의 역할을 한다면, 문화는 국가라는 경계에 갇힌 정태적인 것으로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낳는다.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류이론의 이분법적 사고는 문화와 상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정치의 본질을 간과하는 오류를 낳는다고 한다.

구성주의자들의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인간이 '상징의 제국(the kingdom of signs)'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론적 은유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symbolic) 은유'에 의하면, 인간은 '사물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상(representations)들이 구성하는 상징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징의 세계는 사물과 인식(cognition)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구성된 세계(constructed world)'로서 이렇게 구성된 세계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적 경계는 없고, '상상의 경계' 또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만이 있을 뿐이다.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상상의 경계'일 뿐이며 그 자체가 '물리적 실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징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정치는 본질적으로 상징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은 문화적 상징의 교환을 매개하는 내적 요소이며, 동시에 그러한 문화적 상징의 외적 발현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상징적 기술론이 상정하는 기술은 객관과 주관의 이분법적 대립항을 넘어서 존재하는 간(間)주관적(inter-subjective) 요소로서 인류사를 '형성'하는 동시에 인류사를 '반영'한다. 다시 말해, 기술은 인류의 '구상(plan)'을 표출하기 위해서 개발한 '실행(practice)'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류사의 주관세계와 객관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단순히 물적 존재의 생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류의 문화적 상징의 창출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기술은 인류의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며 인류가 역사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학습해온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의 궤적을 의미한다.

구성주의의 상징적 기술론이 상정하는 권력의 개념은 간주관적 요소로서의 기술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정체성과 신념체계 및 가치관 등의 형성에 작용하는 '구성적 권력'이다. 특히 IT를 통해서 발휘하는 구성적 권력은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문화상품에 묻어서 행사된다. 여기서 IT는 문화상품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징을 생산, 확산, 공유케 하는 매개체이다. 실제로,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IT를 기반으로 생산된 문화적 상징들은, 산업화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고도의 복합적인 방식으로 문화상품에 통합된다. 최근에 등장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에 있어서 첨단 IT를 활용한 특수효과가 널리 도입되고 있으며, 생산된 문화상품의 유통 과정도 IT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미 IT는 상징적 지식이 생산과 유통 및 소비되는 세계정치의 권력 메커니즘에 매우 깊숙이 침투하였다.

한편, 상징적 기술론이 상정하는 세계질서의 변화상은 IT를 매개로 하여 각종 관념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확산되는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국민국가의 단위를 넘어서는 정체성의 출현 과정이다. 이러한 관념 확산과 정체성 중첩으로서의 세계화는 인터넷과 각종 IT기기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상상의 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사이버공간의 등장과정에서 생성되는 문화정체성은 국민국가 단위의 국민정체성(nationality)을 넘어서 인터넷상의 노드(node)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네트워크 정체성으로서의 노드정체성(nodality)이다. 이렇게 영토성과 사이버공간 또는 국가단위와 개인단위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중층적 정체성의 출현 가능성은 구성주의자들로 하여금 주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기본단위체에 대한 전제, 즉 국민국가 단위로 설정되었던 '상상의 경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상징적 기술론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권력론 및 변화의 전망은 관념형성의 구조(ideational structure)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역으로 물질적 구조(material structure)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어떤 형태로건 상징적 기술론이 상정하고 있는 관념형성의 구조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물질적 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정치의 상징세계 또는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물질적 인센티브는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기술은 어떠한 구성적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상징적 기술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이다. 결국 이익이나 제도 및 관념의 세 변수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삼자간의 관계를 밝히는 구성적 기술론의 모색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Ⅲ. 정보화와 세계정치의 쟁점

1. 정보화와 권력이동에 대한 논의

정보화라는 용어는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라는 표현으로 1960년대 후반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정보화의 번역어인 informatization도 비영어권에서 고안된 말이기 때문에 영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영어권의 연구자들은 정보화라는 용어보다는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이나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또는 정보시대(information age)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정보화라는 용어는 학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 슬로건적인 개념으로 고안되고 사용되어온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엄밀한 개념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게다가 학자들마다 정보화의 각기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개념정의를 도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개념은 대략 1970년대 이래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층적인 사회변화를 지칭한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정보화의 개념을 세 가지 층위에서 이해한다. 첫째, 정보화는 IT로 대변되는 새로운 물질적 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산업 차원의 변화, 즉 '정보산업화'를 의미한다. 둘째, 정보화는 IT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각종 지식을 생산, 축적, 배포, 활용하는 과정의 변화, 즉 '지식정보화'를 의미한다. 끝으로, 정보화는 IT를 매개로 한 정보·지식생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제도 및 사회문화 차원의 변화, 즉 '지식사회화'를 의미한다(Castells 1996; Burke 2000; Barabási 2002).

그렇다면 정보화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가? 간단히 말해, 정보화의 과정에서 부상하는 지식 변수가 세계정치의 권력을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통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추구해온 권력자원, 즉 군사력과 경제력의 행사에 있어서 지식 변수가 필수 불가결하게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IT의 발달은 소위 권력이동(powershift), 즉 권력의 중심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넘어서 지식력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IT는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1세기의 권력자원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기술·정보·지식이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지식 변수의 중요성이 절박하게 강조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IT는 세계정치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물적·지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정치 권력기반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정치 행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식력의 위력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먼저 발견된다. 1990년대 이후 IT를 응용한 무기체계의 혁신은 21세기의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으로서 군사분야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이하 RMA)을 논하게 만들었다. RMA의 핵심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군사능력의 획기적 발전을 추구하는 기술혁신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찰체계와 장거리의 고정밀 타격무기를 연결·결합하여 새로운 복합체계를 탄생시킴으로써 전투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걸프전쟁 이래 미국이 수행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첨단기술의 무기체계를 보유한 측과 보유하지 못한 측의 격차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IT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치·경제 지도자들은 새로운 지식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래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IT의 개발과 인적자원의 양성 및 기술이전의 과정을 통해 정보산업의 기반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의 배경에는 산업경쟁의 무게중심이 제품경쟁으로부터 기술경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노동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 산업보다는 지식집약적 산업이 21세기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분야에서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비견되는 새로운 제4의 생산요소로서 지식 변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식자원을 둘러싼 각종 국제경쟁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흔히 '정보고속도로'로 대변되는 IT인프라의 구축을 둘러싸고 정보화의 초기 국면에서부터 국가 간 경쟁이 진행되어 왔다. 인터넷 정보자원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이를 거래하는 인터넷상의 시장이 형성되고,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보호하고 조정할 목적으로 디지털 재산권이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또한 기존에는 군사영역의 국가 간의 관계에 주로 적용되었던 안보 개념의 틀을 빌어서 인터넷과 네트워크 환경의 위협요소들, 즉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사이버공격 등을 이해하고 암호기술과 같은 기술적 보호 장치의 개발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이러한 지식자원 경쟁이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 변환의 일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은 틀림없다. 특히 정보화의 초기 단계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자원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부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원의 관점에서만 지식권력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정보화가 세계정치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기에 다소 미흡하다. 왜냐하면, 정보화시대의 권력 개념에서는, 행위자 자체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우러나오는 권력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권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행위자의 속성과 지식자원에 기반을 두는 기존의 권력메커니즘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통적인 권력메커니즘은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관계 속으로 스며들어 교묘한 모양으로 그 작동방식을 바꾸어간다.

이러한 새로운 권력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개념이다. 나이에 의하면, 세계정치의 권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이 강제하고 밀어붙이는 권력인 하드파워(hard power)로부터 문화·이념·외교 등을 바탕으로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통해서 작동하는 소프트파워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경제 이념, 그리고 미국의 대중문화와 공공외교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실천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정책개념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분석적인 학술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나이의 개념은 하드파워로부터 소프트파워로의 이동이라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도식을 사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소프트파워 개념은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우러나오는 권력의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Keohane and Nye 1998; Nye 2004).

이러한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서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비서구 지역의 국제정치학자들에게도 '소프트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나이의 개념 자체가 강대국 중심의 세계정치 현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탈냉전 이후의 세계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패권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적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등장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원래 하드파워의 측면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재생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세계정치에서 소프트파워가 어떻게 '생산' 되는지, 그리고 하드파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소프트파워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먹을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의 조리법에 대해서는 물어볼 없는 상황을 연상케 한다.

또한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분석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성과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다분히 행위자 기반의 개념화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밀고 당기는 작용과

반작용의 인과관계를 염두에 둔 인식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행위자 차원을 넘어서 구조(structure) 차원에서 작용하는 권력이나 밀고 당기는 관계 자체를 아예 초월해서 작용하는 탈구조적(post-structural) 권력의 개념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에 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정치학계는 행위자 차원의 권력 개념을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들을 벌여 왔다. 소위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 제도적 권력(institutional power), 구성적 권력(constitutive power) 등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행위자 차원을 넘어서는 권력은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하는가? 이는 향후 정보세계정치가 진행해야 할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요컨대, 정보화는 일차적으로 기술 · 정보 · 지식의 생산이 양적으로 증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계정치 시각에서 이러한 과정이 지니는 전략적 의미는 지식자원이, 기존의 부강(富强)을 추구하는 물질적 권력자원을 넘어서, 세계정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보화는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미 생산된 지식을 전파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정치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특히 정보화는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메타지식이나 지식의 생산과 소비 과정의 규칙과 규범을 부과하는 지식,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의 권력적 함의를 제고시키고 있다(Hozic 2001; Hart and Kim 2002; Hart 2004; May and Sell 2006). 이러한 지식권력의 메커니즘이 지니는 세계정치적 의미는 행위자 차원에 기반을 둔 물질적 권력을 넘어서 구조 차원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을 부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 정보화와 지식질서에 대한 논의

새로운 권력으로서의 지식을 둘러싸고 21세기 국가 행위자들은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그러한 와중에 어떠한 세계질서의 세력구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보화시대의 지식질서 변환이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분야의 세계질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지식질서의 변환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과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의 발상을 넘어서는, '지지학(地知學, geo-knowledge)'의 시각에서 21세기 세계질서를 시도가 필요하다. 이 글은 1) 지식패권의 현황, 2) 지식레짐의 변동, 3) 대항적 지식담론의 부상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글로벌 지식질서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우선, 정보화의 과정에서 IT를 둘러싼 세계 지식질서의 패권구조가 변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화는 사회세력간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는 '배분적 변화(distributional change)'를 야기한다. 배분적 변화란 행위자들의 힘의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한 것은 지식력의 분포라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패권을 둘러싼 세계정치 행위자간 경쟁을 통해서 정치세력의 위상이 변한다. 길핀(Robert Gilpin)이나 모델스키(George Modelski)와 톰슨(William Thompson) 등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세계경제 선도부문에서의 경쟁의 승패에 따라서 세계패권의 부침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지식경쟁은 정보화시대의 주도권을 놓고 펼쳐지는 세계정치의 단면을 아주 극명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공유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롭게 짜이는 글로벌 지식질서의 핵심에 서 있다(Herrera 2006).

IT인프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을 허브로 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2005년 2월 현재 유럽지역의 국제연구망은 약 100Gbps(Gigabits per second)급 이상으로 북미와 연결되어 있으며, 아태 지역은 60Gbps급 이상으로 북미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률 면에서도 미국은 한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앞서 있다. 게다가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국제 인터넷망이 미국을 허브로 하여 형성되어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 및 태평양 간의 교류량은 북미와 이들 세 지역 간 교류량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IT분야 기술경쟁력 면에서 미국은 크게 앞서 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최근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IT분야의 절대 기술력 수준(1996-2000)을 수치로 환산할 때 미국이 16,730, 일본이 5,074, 한국이 405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식의 투입 측면에서 1970년대 이래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보면, 2000년 현재 미국은 2,426억 달러로서 일본(936억 달러), 독일(473억 달러), 프랑스(294억 달러), 영국(235억 달러)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단편적인 수치를 넘어서 미국이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분야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IT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과 같은 IT산물을 최초로 개발한 나라이며, 이를 활용하여 IT산업을 일으키고 디지털경제의 붐을 일으킨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정보화시대의 지식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질적 위상을 엿

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 보자.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지식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gateway)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대개의 경우 컴퓨터의 전원스위치를 켜고 난 이후, 컴퓨터 운영체계, 웹브라우저, 인터넷주소,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거쳐야만 인터넷에 올라 있는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관문들을 장악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또는 기관)들이라는 사실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관리하는 영문자 위주의 도메인이름 체계, 그리고 구글이나 야후와 같은 포털사이트 등이 그 사례이다. 글로벌 지식질서에서 이러한 관문들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 분야가 바로 우리가 정보를 찾고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소비하는 과정에서 소위 '표준(standards)'을 제공하기 때문이다(김상배 2007).

이상에서 언급한 미국의 지식패권은 미국이 대외적으로 군사·경제·문화·외교 분야에서의 패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초로서 작동하였다. 다시 말해, 지식 분야에서 보유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력·경제력·문화력·외교력 등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화시대의 군사력을 정보화시대의 군사력으로 바꾸는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오프라인의 경제지구화를 주도하는 미국의 패권을 투영하여, 온라인의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과 같은 디지털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IT기술로 포장된 미국 문화산업의 생산품이

전세계적로 전파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시대 외교의 과정과 영역 및 주체의 변화에 적응하여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측면 이외에도 세계 지식질서의 변환은 세계정치의 '법률상(*de jure*)의 구조'에 해당하는 국제레짐 또는 국제제도의 변화에서도 발견된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통신 레짐이나 지적재산권 레짐 또는 서비스무역 레짐 등에서 나타나는 구조변환의 사례들은 IT환경의 도래에 적응하는 새로운 지식레짐의 출현과 전통적인 국제레짐의 관할권이 충돌하는 신·구 레짐의 갈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ICANN이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최근에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와 같은 전통적 정부 간 국제기구가 도전하고 있다(Goldsmith and Wu 2006).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관할권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텔레커뮤니케이션, 인공위성, 표준화, 정보격차해소, 개인정보, 사이버보안, 콘텐츠규제 등과 같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둘러싸고 국제기구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제레짐의 변환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적 틀 짜기의 과정에 지식패권으로의 미국의 이해관계가 부단히 투영된다는 점이다. 최근 WSIS 과정에서 ICANN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방어적 태세가 대

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지식패권에 대한 개도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 무역레짐에 기댄 미국의 통상압력의 움직임도 중요한 사례이다. 198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미·일 반도체 분쟁의 사례에서 보건대, 미국은 WTO의 국제레짐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려고 하였다. 한국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소위 동기식 이동통신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이 최근 들어 휴대인터넷·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한국산 단일표준인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정보화시대의 세계 지식질서에서 미국이 지식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세계정치의 현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간 경쟁의 차원에서 지식패권의 주도권을 노리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의 도전은 여전히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또한 새로운 글로벌 지식레짐의 형성과정에서 관찰되는 미국의 독주에 대한 유럽과 개도국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지식의 변환과 네트워크의 확산에 기대어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대항담론의 도전이다. 이러한 대항담론의 부상은 국가 간 세력경쟁 및 제도변화의 차원을 넘어서는 관념 차원에서 본 세계 지식질서의 구조변환을 엿보게 한다.

예를 들어, 근대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응하는 '정보공유(copyleft)'의 대항담론은 세계정치 시각에서 보아도 매우 흥미롭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에 대한 대안적 운영체계로서의 리눅스(Linux)가 지난 몇 년간에 보여준 성장의 잠재력은 이러한 정보공유운동이 단

순히 기술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념 차원의 운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진영에 반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이나 국가까지도 가세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을 매개로 한 리눅스의 기술혁신 공동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버전의 백과전서인,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집단적인 지식생산 네트워크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 중심의 문화패권에 대항하여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세대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새로운 문화담론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게임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동영상이나 기타 디지털 콘텐츠 등과 같은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형태를 보면, 위계적 네트워크에서의 일방적 소비자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쌍방향적인 '프로슈머(prosumer)'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 분야의 대항담론은 세계정치 전반에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부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테러집단의 부상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온 군사력의 개념뿐만 아니라 군사전략과 안보의 개념 자체도 그 기저에서부터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시민사회 운동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들을 조직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발견한다. 또한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를 지지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며 대인지뢰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옹호자 네트워크들은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소위 '시애틀 전투'에서 반세계화 행동주의자들은 WTO와 지구화 세력에 대한 대항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휴대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3. 정보화와 국가변환에 대한 논의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지식의 부상은 권력메커니즘의 변환이나 지식질서의 변동 차원을 넘어서 세계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화의 진전은 기존에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이해되던 세계질서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지식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의 가속화는 국가의 성격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아닌 새로운 행위자들이 세계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IT의 발달이 창출하는 탈집중의 제도환경에서 국가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자, 즉 적자(適者)는 아니다. 오히려 IT가 창출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의 능력을 갖고 정보와 지식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기에 적합한 행위자는 다국적 기업이나 NGOs 등과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비국가 행위자들이다(Deibert 1997; Resenau 2003). 최근 '거버먼트(government)'로 대변되는 수직·집중형의 조직을 넘어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대변되는 수평·탈집중형의 네트워크의 부상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배우의 배역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등장인물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권력주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IT는 국민국가의 관리능력과 주권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확산은 영토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가 독점해온 안보유지 능력의 물적 토대를 잠식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온 군사력의 개념뿐만 아니라 군사전략과 안보의 개념 자체도 그 기저에서부터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테러그룹이나 범죄자들에 의해 도발될 소위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s)'의 효과성을 크게 높여 놓았다. 비대칭전쟁이란 힘과 규모의 면에서 비대칭적인 행위자들이 비대칭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 다른 비대칭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의미한다. 구가 행위자에 대한 테러집단의 공격이 대표적인 비대칭전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비대칭 전쟁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예를 들어 해커(hackers) 또는 크랙커(crackers)들에 의해 세계 주요기관의 웹서버 작동이 정지된다거나 웹사이트가 해킹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Arquilla and Ronfeldt eds. 2001).

영토성에 기반을 둔 국가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의 예는 디지털경제 영역에서도 찾아진다. 예를 들어, 사이버공간의 전자상거래가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초국가적으로 발생한 전자상거래의 물리적 장소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탈장소성은 근대 이래 영토국가에 의해 행사되어온 조세관할권에 도전을 제기한다. 한편 전자화폐의 등장도 기존의 화폐수단에 단순한 유동성을 첨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영토국가의 화폐정책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으로 작용한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화폐흐름에 대한 디지털 정보는 국가가 규제자로서 나서서 통제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돈과 정보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기업들로 하여금 아웃소싱과 같은 전략을 포함하여 글로벌 생산전략을 성취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국민국가의 정부들이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인터넷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도 국가의 정보통제 능력과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라는 탈집중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국가에 의한 정보통제의 가능성과 효과를 상쇄하는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하이퍼텍스트에 기반을 둔 월드 와이드 웹은 초국가적 차원에서 자유담론을 유통시키는 새로운 문화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터넷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는 달리 정보의 발신자가 어느 한 국가의 영토관할권 내에서가 아닌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자기만의 신문사나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탈집중된 환경을 제공한다.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 자체가 다수의 이용자들 간의 정보흐름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보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상대적 약화에 대한 논의가 설득력을 얻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는 국민국가를 유일한 세계정치의 행위자로서 간주해온 전통적인 국제정치이론의 기본전제를 침식한다. 오늘날 국민국가의 국경은 초국가적 논리를 지닌 자본, 상품, 정보, 기술, 범죄, 질병, 공해 등의 흐름에 의해 침투되고 있으며, 국민국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영토주권적 권위를 침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국민국가 단위의 국민정체성 관념의 변환이 자리 잡고 있다. 인공위성이나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기술이 지구적 차원에서 작동하면서 기존에 국민국가가 그어놓은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IT환경에서 국가가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대체

되어 완전히 도태된다고 볼 수는 없다(Skolnikoff 1993). 왜냐하면 정보세계정치는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득권이 작동하는 정치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적응력을 가지고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IT를 활용하는 반격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의 고유영역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문제나 글로벌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능의 필요성 등이다. 결국 IT가 야기하는 세계정치의 변화는 국가의 소멸보다는 부단한 '제도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로 국가의 형태가 변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IT를 매개로 하여 국가의 안과 밖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의 출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하영선 · 김상배 편 2006).

이러한 네트워크국가의 역할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영역은 다름 아닌 지식국가(knowledge state)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정책결정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지식 영역은 전문화 · 세분화되어 국가가 모두 떠맡기에는 벅찬 지식집약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더군다나 해당 분야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정책결정의 주요과정으로서 이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차후 정책수행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결국 지식의 세계정치는 더 이상 국가영역에만 배타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으며, 실제로 다양한 기업이나 NGOs의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계정치 주체의 네트워크화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가

네트워크화한다고 해서 국가의 권력이 사라지거나 탈정치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권력 메커니즘은 좀 더 보이지 않는 형태 또는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권력의 형태를 띠면서 여전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비유컨대, 이러한 과정에서 관찰되는 국가의 권력은 마치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국가 구성원이라는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고, 업무 코드를 프로그래밍하며,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국가(software state)'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상하는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연결망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등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국가는 정부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주의의 강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출현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모색되고 있는 지역통합의 움직임은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부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등장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대로 글로벌 차원에서 제국형 네트워크를 짜는 미국의 네트워크국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첨단 분야의 R&D 컨소시엄이나 이동통신과 디지털TV 분야에서 나타난 유럽형의 다층적 네트워크국가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지역주의는 아직도 국민국가체제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서 네트워크국가를 지향하는 모델의 면모를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민국가의 변환은 정치적 단위체 자체의 구성

원리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권위의 아키텍처, 즉 세계질서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T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국제체제의 기본구조에 대한 관념, 즉 근대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질서에 대한 관념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IT가 변화시키고 있는 근대 국제정치의 구성 원리 중의 하나가 바로 주권(sovereignty)의 원칙이다. 실제로 정보화시대를 맞아 근대적 국가주권의 관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침식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IT분야의 지식주권(knowledge sovereignty)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례일 것이다. 여하튼 새롭게 출현하는 탈근대 세계질서의 관념은 다층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다면적 제도체(multiperspectival institutional forms)'의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로즈나우(James Rosenau)가 묘사하고 있듯이, 분화(分化, fragmentation)와 통합(統合, integration)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분합(分合, fragmegration)'의 세계정치에 대한 관념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Resenau 2003).

Ⅳ. 맺 음 말

지식과 네트워크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을 제대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 국제정치학의 인식론을 뛰어 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국강병이라는 물질적 권력자원을 추구하는 국제정치에만 눈을 고정시켜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게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립된 행위자로서의 '국민/민족(nation) 간의 관계(inter-nations)'를 파악하는 기존의 국

제정치학(國際政治學, international politics)의 시각으로는 세계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변환의 세계정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권력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체계의 형태를 띠는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학' 또는 '망제정치학(網際政治學, internetwork politics)'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세계정치 변환의 핵심은 세계정치 권력메커니즘의 변형과 지난 수백 년 간 세계정치의 운영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국민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재조정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지식권력의 부상과 네트워크국가의 등장이라는 현상이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과 같은 21세기 세계질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렇게 변환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동학을 세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 글은 세계정치의 변환 과정에서 정보화 또는 지식 변수가 단순한 도구나 환경의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인 구성적 요소로서의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 변환 과정에서 미국이 산업화 시대의 국력을 바탕으로 정보화시대의 세계지식질서에서도 사실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보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정보세계정치의 전 영역에 있어서 미국은 기술·정보·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공유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롭게 짜이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데 아울러 명심해야 할 점은 세계정치의 변환 과정에는 미국이라는 국가 행위자가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세계정치의 장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와 같

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복수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가 맥없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화시대의 권력변형 과정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민국가의 재조정, 즉 국민국가의 경계 안팎에서 새로운 역할과 형태를 모색하고 있는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부상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 변환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의 기본방향은, 우선 근대적인 의미에서 본 부국강병의 목표설정을 넘어서 새로운 권력의 작동메커니즘에 우리 자신을 익숙케 하는 쪽으로 잡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패권진영과 이에 대한 대항진영의 구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묘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 행위자로서 네트워크 지식국가를 추구하는 글로벌 및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대외전략이 조화롭게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대내적으로도 국가중심적인 추진주체 설정을 넘어서 정부 부처 간 네트워크나 정부-기업-시민사회 등의 조정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은 지난 백여 년의 것과는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권력과 주체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만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지식과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부과하는 도전은 19세기의 근대적 도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밀려온다. 그렇다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19세기 말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 뻔하다. 21세기를 헤쳐 나가면서 우리가 19세기 문명표준을 따라잡지 못해 식민지

가 되었던 역사를 극복하는 길은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과 국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주요문헌 소개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Blackwell. 정보사회학의 시각에서 3부작을 저술한 카스텔의 첫째 권이다. 정보사회 또는 네트워크사회에 대한 역사와 기본개념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술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정보사회 연구의 고전이다.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2001.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RAND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과 네트워크전쟁(netwar)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들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특히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테러의 부상을 분석하고 있다.

Nye, Jr.,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국제정치학계에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개념을 소개한 나이의 저작이다. 이념, 문화, 외교의 관점에서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제시하고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소프트파워에서 대한 경험적 논의를 펼치고 있다.

Rosenau, James N. and J.P. Singh, eds. 2002.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정보기술이 야기하는 세계정치의 변화를 권력(power)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정보세계정치 분야의 주요 사례들을 정보기술과 세계정치의 구성

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하영선 · 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 근대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였던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민국가의 변환에서 찾고 있다. 이론적 논의와 함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지식 등 경험적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김상배. 2007.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한울.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산업경쟁이자 권력정치의 사례로서 '표준경쟁'의 테마를 던지고 있다. IT산업의 표준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구조적 지배를 의미하는, 윈텔리즘(Wintelism)을 이론적 · 경험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밖에 이 글을 집필하는 데 참고한 다음의 문헌들도 일독하기를 권한다.

참고문헌

Barabási, Albert-László. 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Burke, Peter. 2000.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From Gutenberg to Diderot*. Cambridge: Polity.

Deibert, Ronald J. 1997.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art, Jeffrey A. 2004. *Technology, Television, and Competition: The Politics of Digital TV*.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t, Jeffrey A. and Sangbae Kim. 2002.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U.S. Competitiveness: The Rise of Wintelism." *The Information Society*. 18(1), pp.1-12.

Herrera, Geoffrey L. 2006.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Transformation: The Railroad, the Atom Bomb, and the Politics of Technological Chang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Hozic, Aida A. 2001. *Hollyworld: Space, Power, and Fantasy in the American Econom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Innis, Harold. 1950. *Empire and Communic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1998.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Foreign Affairs*. 77(5), pp.81-94.

May, Christopher and Susan K. Sell. 200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ritical History*. Boulder & London: Lynne Rienner.

Rosenau, James N. 2003.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kolnikoff, Eugene B. 1993. *The Elusive Transformation: Science, Technology,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alalay, Michael, Chris Farrands, and Roger Tooze. eds. 1997. *Technology, Culture and Competitiveness: Change and the World Political Economy*. London: Routledge.

12 지구 거버넌스[1]

조 동 준

Ⅰ. 서 론

지구 거버넌스는 현재 국제관계 현상을 규율하거나 국제쟁점을 해결하는 과정과 결부되어 있다. 이 개념의 등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지구화의 결과이다. 한 정치단위체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지구적 영향을 초래하는 지구화 현상은 유럽 국가가 신대륙을 정복했던 15세기 후반부터 발생하였다(Murphy 2000, 789). 대항해시대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신대륙을 연결하는 안정적 해로를 구축함에 따라 인류의 삶이 서로 얽히게 되었다.[2] 산업혁명 이후 유럽제국이 본격적으로 구대륙을 식민지로 만들

1) 이 논문은 졸고("세계정치 운영방식의 변환과 한국의 참여." 하영선 · 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07)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1588년 깔레 해전(Battle of Calais)이 명나라의 재정파탄으로 이어진 사례는 신대륙 발견 이후 항해술 발전이 인류의 상호의존을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패배하자, 스페인은 대서양을 안정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스페인은 신대륙으로부터 귀금속을 안정적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되었다. 귀금속의 유입감소는 인도와 중국산 물품의 수입 축소로 이어졌다. 이는 명나라의 국제수지 악화와 조세원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명나라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농민에게 세금을 걷으려 하였고, 결국 농민 반란으로까